

아시아·태평양지역의 LNG가격, 수급현황 및 전망

석유의존도 감축의 필요성 및 환경규제에 대한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LNG가격 및 수급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향후 아시아·태평양지역의 LNG수급은 균형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나 수입가격 체계는 가격조건인 신축성 등을 고려해 볼 때 상당한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價格〉

최근 아시아·태평양지역 LNG시장에서는 합리적 가격체계구축을 위한 전략으로 수출국은 기존의 유가연동방식을 고수하려는 움직임에 반해 수입국은 FOB가격조건을 선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

한 가격조건 변화는 신규공급국(호주, 파푸아뉴기니, 베트남, 기타 중동국가) 등장에 따른 생산국가의 수출경쟁 심화와 수입국의 LNG탱커 보유증가 추세 등이 그 배경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태평양지역 LNG수입국은 歐美 수입국에 비해 높은 가격프리미엄을 지불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아시아·태평양지역 LNG시장의 지역적, 구조적 특성 즉, 1) LNG의 독주를 견제할 파이프라인 가스시장의 부재, 2) 공급의 독과점 현상에 따른 非경쟁상태, 3) 他 지역(中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생산비(중동의 150%)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지역별 LNG 도입가격 추이

(단위 : \$/백만 BTU)

	1990. 1	1990. 2	1990. 11	1990. 12
일본(인도네시아산)	3.57	3.66	6.03	5.51
북미(보스톤산)	2.65	2.35	3.00	3.10
프랑스(알제리산)	3.09	3.15	3.69	3.69
벨기에(알제리산)	3.13	3.16	3.75	3.72

아시아·태평양지역의 LNG공급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몇몇 국가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데 3개국의 '90년도 공급점유율은 85%에 이르고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총공급량의 58%를 차지함으로써 가격결정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지역 LNG 수입국들은 공급국의 독과점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수입선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는데 연초에 日本 산업통산성은 인도네시아에 대한 수입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수입선 다변화를 공표한 바 있다. 수송부담 경감을 위해 수입국의 LNG탱커 보유 경향이 증가함에 따라 FOB가격에 의한 계약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LNG수입가격체계는 상당한 변화를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

〈需給〉

美國의 전력수요는 향후 20년동안 연평균 2.1~2.6% 증가함에 따라 천연가스의 발전부문비율 역시 1995년, 2000년에 각각 20%, 27%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상난동 및 낮은 경제성장률로 인하여 '90년도 천연가스 소비는 1989년 대비 1.7%가 증가된 485백만 TOE인 반면 生産은 약 442백만 TOE에 머물렀다.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의 고조 및 석유의존도 감축필요성의 대두로 2000년의 천연가스소비는 1970년 수준인 598백만 TOE인 반면 생산은 52백만 TOE가 부족한 546백만 TOE가 예상됨에 따라 2000년에 가서는 미국의 가스수입이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日本の LNG수요는 현재 연간 34.3백만톤에서 2000년에는 43.0백만톤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발전부분의 가스수요가 연평균 3.8%의 빠른 증가와 함께 도시가스용 LNG소비가 확대될 전망이다. 아시아·태평양지역천연가스소비의 42%를 차지하고 있는 日本은 현재 인도네시아로부터 연간 17백만톤의 LNG를 수입(인도네시아산 LNG

수입량: 한국 2.3백만톤, 대만 1.5백만톤)하고 있다.

臺灣은 '90년 4월부터 1.5백만톤의 인도네시아산 LNG를 향후 20년간 도입하기로 결정하였고, 최근 말레이시아로부터 '95년부터 2015년까지 연간 2.25백만톤 수입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지속적인 경제성장, 원전건설 제약, 도시대기오염 심화 등을 감안할 때 2000년의 LNG수입량은 연간 4.5백만톤으로 증대될 전망이다. 따라서 韓國, 臺灣, 日本 등 極東지역의 LNG 수요는 지속적인 경제성장, 천연가스 선호경향, 환경오염의 심화 등으로 인하여 2000년에는 57백만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신규 프로젝트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2000년의 LNG 공급력은 예상수요의 65%이하 수준에 머무를 전망이다 반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및 호주 등이 추진중인 신규 프로젝트가 가동되는 경우 2000년에 가서는 LNG공급능력이 현재의 37백만톤에서 69백만톤에 이르러 예상수요를 充足시킬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000年 對 極東 LNG 公 供 力 前 望

(단위: 백만톤)

수출국	기 준	만 료	신 규		2000년 공급	
			A ¹⁾	B ²⁾	C ³⁾	D ⁴⁾
인도네시아	19.25	1.07	6.3	8.0	24.48	32.48
말레이시아	6.00	-	2.5-5.0	-	8.5-11.0	8.5-11.0
호주	5.84	-	-	6.0	5.84	11.84
부르네이	5.14	5.14	-	-	-	-
미국(알래스카)	0.96	0.96	-	7.0-14.0	-	7.0-14.0
아태지역(계)	37.19	7.17	8.8-11.3	21.0-28.0	38.82-41.32	59.82-69.32

1) A = '90년대 중반 공급개시 프로젝트 2) B = 2000년경 공급개시 프로젝트

3) C = '90년대 중반 가능한 공급력 4) D = 2000년경 가능한 공급력

〈資料〉 Petroleum Intelligence Weekly, 1989. 11

향후 급격한 가스소비 증가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韓國과 臺灣이 수입국으로서의 비중이 커짐에 따라 최대의 LNG수입국인 日本은 수입가격 주도국(Monopsony)으로서의 위치가 다소 약화되리라 예상된다. 앞으로의 가장 큰 관건은 안정적 공급물량의 확보외에 輸送 및 저장시설확충에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수출국의 경우 기존의 LNG 시장점유율 유

지 및 확대를 위한 가격 및 제반조건에 관한 再考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향후 LNG시장이 가격은 신규 및 재계약시 제시될 가격 및 계약조건인 신축성정도에 좌우될 것으로 보여지며, LNG수급방향은 신규공급 프로젝트의 추진현황에 따라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동향〉